【연구논문】

가내하인에서 '전기하인'으로: 남북전쟁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 사회변화와 기술변화의 관련성에 관한 시론

김덕호 (코리아텍)

1. 머리말

적어도 1970년대까지 주류 학계의 해석에 의하면,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선적으로 가정이 일터와 분리되었다. 그리하여 남성은 일터에서, 여성은 집안에서 일을 하는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 분리를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남성은 가장(breadwinner)으로서 일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아오고, 여성은 가정의 수호자로서 '가정성(domesticity)'에 충실하고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housework)'에 전념해야한다는 이념이 정당화되었다.!) 남녀 간의 이러한 일종의 '영역분리주의(doctrine of separate

Barbara Easton, "Industrialization and Feminity: A Case Study of Nineteenth Century New England," *Social Problems* 23, 4 (April 1976): 394-95.; Barbara Welter, "The Cult of True Womanhood, 1820-1860," *American Quarterly* 18 (Summer 1966): 151-74, Judy Wajcman,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 (Cambridge: Polity Press, 1991), 112-13; Mary Ryan, *The Empire of the Mother: American Writing about Domesticity*, 1830-1860 (New York: Haworth Press,

spheres)'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미국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사노동 이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단어이며, 적어도 13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가사노동'이라는 용어 대신에 집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의미의 '가사(家事; housewiferie)'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그러니까 '가사노동'이 19세기와 20세기 노동자들이나 세일즈맨의 세계와 공존했다면, '가사'는 산업혁명 이전의 농민들이나 장인들의 세계와 공존했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은 바로 산업화로인하여 남성과 여성 간에 "물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나누어지게 된 '영역분리주의'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혁명의 결과 그 이전에는 가정이 생산과 소비의 영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상업화와 기계화가 진행된 결과 가정은 생산의 영역이 거의 다 제거되고 그저 소비의 영역만 남았다는 해석이 주류로 자리잡았다. 특히 탈코트 파슨즈(Talcot Parsons)류의 기능주의 가족 사회학에서 그렇게 보았다. 즉,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가정이 지니고 있었던 고유의 생산 기능을 하나씩 둘씩 공장의 영역이 가져가면서 결국 가정에는 소비 기능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 이러한 통념은 일반인들에게스며들어 조만간 가정 내에서 오래된 생산 형태가 "기술적 합리성의 적용"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예컨대, 주방에서의 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페스트 푸드(fast food)'가 만들어지고, 집안의 힘든일을 줄여주기 위해 세탁기나 다리미 등의 '노동절약적 기구'가 발명되었

^{1982);} Carl Degler, At Odds: Woman and the Family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참조.

²⁾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가사노동이라는 단어가 가장 일찍이는 영국의 경우 1841년에, 미국의 경우 1871년에 등장한 것으로 되어있다. Ruth S. Cowan, More Work for Mother: The Ironies of Household Technology from the Open Hearth to the Microwave (New York: Basic Books, 1983), 17-18. 여성사가 에번스는 '영역분리'를 이데올로기로 이해하고 있다. Sara Evans, Born for Liberty: A History of Women in America (New York; Free Press, 1989), 138.

³⁾ Wajcman,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 83.

다고 보았다.4) 따라서 19세기말 이후 미국의 가정에서는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진공청소기, 토스터, 다리미, 세탁기 같은 '전기 하인(electric servant)'이 '가내하인(domestic servant)'을 몰아내면서 주부의 할 일을 줄여주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여성들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 신념을 제공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웬만한 중간계급 이상의 가정에서는 거의 다 집에 가내하인 혹은 가정부를 집안에서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면서 가내하인들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전기하인'으로 불린 가전제품들([domestic] electric appliances)을 통한 기술적 변화 때문에 가능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절약형 기구의 등장으로 가내하인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특히나 여성 가내하인인 가정부들이 중간계급 가정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전기하인'이 등장하면서 가내하인들이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상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었는가가 역사적으로 올바른 설명이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기술사가인 루스 코완(Ruth Cowan) 또한 진지하게 되묻는다. 가내하 인들을 거느린 가정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것이 그들을 고용했던 중간계급 이상의 가정에서 전기화가 실현된 결과인지 혹은 그 원인인지를. 그녀의 답변은 양쪽 방향 모두 "동일하게 가능(equally possible)"했다는 것이다. 5) 즉, 가전제품들의 사용이 늘어나니까 가내하인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가내하인들이 감소하니까 가전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되는 현상이 벌

Christine E. Bose, Philip L. Bereano, and Mary Malloy, "Household Technology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Housework," *Technology and Culture* 25, 1 (Jan. 1984): 53.

⁵⁾ Ruth Cowa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Home: Household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in the 20th Century," *Technology and Culture*, 17, 1 (Jan. 1976): 20.

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가내하인들의 숫자를 또 다시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또 다시 가전제품 수요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뒤집으면, 가내하인들이줄어드니까 그 대안으로서 가전제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이러한 제품들의증가는 다시 가내하인들의 감소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 방향이건, 최종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략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면가내하인층이 미국 사회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가전제품의 사용은중간계급을 넘어 노동계급에까지도 파급될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는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코완은 가내하인과 '전기하인'의 인과관계에 있어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 사회에서 가내하인층의 감소라는 사회변화가 가사기술의 발전이라는 기술변화를 촉진했는지 아니면 그 역관계가 지배적이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볼 때 하인층 감소라는 사회변화와 가전제품의 보편화라는 기술변화사이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차라리 이 양자 사이에는 "역동적 상호작용(a dynamic interaction)"이 존재했다고 본다.6) 페미니스트 사회학자인 주디 와이즈먼(Judy Wajcman) 또한 코완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녀 또한 코완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가내하인의 소멸이 가정의 기계화를 촉진했으며, 이것은 차례로 하인의 소멸을 가속시켰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가내하인의줄어든 결정적인 시기를 1920년대로 이해하고 있다.7)

코완은 기술변화가 사회변화를 초래한다고 보는 기술결정론을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변화가 기술변화를 불러온다는, 이른바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에 동조하지도 않는다. 어찌 보면 기술 결정론과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 사이의 절충론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와이즈먼

⁶⁾ Ibid., 22.

⁷⁾ Wajcman,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 85.

도 강조하듯이,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확정적 (indeterminate)" 이라는 점이다.8)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사회 변화가 기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거꾸로 기술 변화가 사회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연 '전기하인'이라 불린 가전제품들의 확산과 미국의 중간계급 가정에서 가내하인들의 감소 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인과 결과가 얽혀있었는지, 아 니면 인과관계는 존재했었는지, 존재했었다면 그 인과관계의 방향은 어떠 했는지, 나아가 양자 사이는 인과관계가 없는 별도의 독립적 변화들이었 는지 까지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여성 노동력으로서의 가내 하인

(1) 중간계급 가정과 가내하인의 등장

일반적으로 19세기까지도 미국에서 특히 중간계급 이상의 아내로서, 주부로서의 여성의 주된 임무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남편의 말과 행동 에 순종하는 것이며, 둘째는 육아에 힘써 자식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으로 잘 자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이었다. 9 바로 이 세 번째가 가사노동의 영역이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엌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세탁하고 다림질 하는 등의 집안에서 일상 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집안일의 경우, 산업화가 진행 되면서 가정에서의 남성 및 아이들의 노동에 해당하는 일들은 상업화되 었다. 예컨대, 남자들은 빵을 굽기 위해서 혹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난 로에 넣을 땔감을 해오지 않게 되었다. 먹을 빵을 만들기 위해 제분소로 밀이나 보리를 가져갈 필요도 없었다. 산업혁명은 집안일을 여성들만의

⁸⁾ Wajeman,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 104.

⁹⁾ 메릴린 옐롬, 『아내의 역사』, 이호영 옮김 (서울: 책과 함께, 2012), 276.

고유한 영역으로 만들었다. 가사노동이 여성들만의 몫으로 남게 된 것이다. 게다가 가사노동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무보수 노동이며, 일하는 장소는 집안이라는 공간에 고립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일로 취급되지 않는 성격의 노동이라는 점에서 '시장 노동(market work)' 과 근본적으로 달랐다.10) 그리하여 산업혁명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것이 '가사'로 불리건 '가사노동'으로 불리건, 집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힘들 고도 단조롭게 반복되고 일이 끝나도 눈에 띠지 않는 성격임에도 불구하 고 그저 허드렛일(drudgery)로 인식되었다. 결국, 가사노동은 중간계급의 주부 입장에서 체통 있는(respectable) 일이 아니었다. 상류층은 진즉부터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가내하인(domestic servant)'11)들을 거느리고 있 었지만, 중간계급의 경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빅토리아적 가치가 자리 잡으면서 가내하인을 한 둘 정도 거느릴 수 있었다. 농촌에서의 미혼 여 성과 유럽에 건너온 미혼 여성들이 이 자리로 공급될 수 있었기 때문이 었다. 따라서 19세기 미국의 도시에 사는 중간계급에게 가내하인의 존재 는 자신들이 중간계급 신분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었 다.12)

19세기를 통해 가사하인은 미국 태생의 백인 미혼 여성들뿐 아니라 외국 태생의 미혼 여성들을 통해서 공급되었다. 이들은 이민을 와서 도시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이 존재했으며, 특히 영어라는 언어적 장애가 없는 아일랜드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예컨대, 1825년 뉴욕시의 경우, 어떤 구직업체의 통계를 따르자면, 총 2,164 명이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59%에 해당하는 인력이 아일랜드 출신이었다. 그리고 흑인 여성은 21%,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스

¹⁰⁾ Cowan, More Work for Mother, 7.

^{11) &#}x27;가내하인'은 사실상 절대 다수가 미혼 혹은 기혼 여성들로 구성되어있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가사 서비스(domestic service)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주로 지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부' 혹은 '하녀'라는 용어도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것이다.

¹²⁾ Cowan, More Work for Mother, 42.

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백인 여성은 겨우 8%를 차지하고 있었다.13)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중간계급 가정주부들은 주인으로서 하녀들에게 유니폼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자신들과 열등한 신분의 가내하인들을 손님 들에게 차별화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영국 의 경우, 1860년대부터 하얀 모자를 쓰고 까만 색 드레스를 입고 앞치마 를 두룬 전형적인 하녀들의 복장이 20세기까지도 지속되었다.14)

중간계급은 의상을 통해서만 하인들과 구별짓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 다. 그들은 집안의 공간배치를 통해서도 후자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들 은 "빅토리아 시대 특유의 사생활에 대한 집착 (Victorian obsession with privacy)"과 일종의 '전문화'를 통해 집안 여성들만이 머물 수 있는 집안의 공간 배치를 요구했다. 이들 가정의 공간은 거실 같은 공적인 영 역과 가족들을 위한 사적인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하녀를 위해서는 내실에서 보이지 않는 방을 배치하고 오로지 뒷 계단을 통해서만 부엌에 출입할 수 있게 주택을 설계하였다.15) 이렇듯 하인들을 위한 공간 분리 또한 고용주와 가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구별짓기 위한 합법적 인 수단이었다.

가내하인들에게 위와 같은 불편함 말고도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했다. 도대체 중간계급 가정이라는 직장에서는 언제 정확하게 하루 일이 끝나 는지 알 수 없었다. 노동과 여가의 시간이 구분조차 안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어떤 하녀는 주인 자신은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으면서, 2층에 앉아서 하루에 20번이나 벨을 누르고 심지어 밤 11시까지도 부르곤 했다 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마치 "기계"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 다. 그들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밖에 나가 만날 수가 없었으며, 겨우

¹³⁾ Susan Strasser, Never Done: A History of American Housework (New York: Pantheon, 1982), 165.

¹⁴⁾ Adrian Forty, Objects of Desire: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 (London: Thames & Hudson, 1986), 81-82.

¹⁵⁾ Sara Evans, Born for Liberty, 138.

부엌에서나 만나곤 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참기 어려운 상황은 같은 육체적 노동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비교하여 사회적 차별과 경멸은 그들에게만 향했다. 밖에 나가면 어느 누구도 그들이 상식을 지난 사람들이건 아니건 가내하인들하고는 상대하려 들지 않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질 않았다.16)

이러한 상황 하에서 누구든 기회만 된다면 가내하인을 그만 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들보다 저임금인데다 언제 일을 그만 둘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가정부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나 친구들을 부러워했다. 왜냐하면 이들 눈에는 그들이 적어도 고용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추론은 사실이었다. 1890년대 한 사회학자는 젊은 미혼여성들이 공장일보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좋은 공간에서 거주할수 있는데도 왜 공장 일을 선호하는 지를 조사했다. 그녀들이 공장 일을 더 원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즉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 즉, 대부분의 가내하인들은 월급이 많고 잠자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조건임에도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적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제약 때문에 기회만 되면 그 일을 그만두고자 했던 것이다.

(2) 가내하인 구성의 변화 및 감소

이렇듯 가내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자, 가장 먼저 미국 태생의 백인 미혼 여성들이 가내하인이라는 일자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기회가 되는대로 가정부 일을 그만두고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공장과 백화점이나 연쇄점(chain store) 따위의 판매직 혹은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무직으로 기꺼이 이동해 갔다. 이들 다음으로 이민

¹⁶⁾ Ibid., 133-34.

¹⁷⁾ Cowan, More Work for Mother, 124-25.

자 백인 여성들 중에서 그러한 이동이 시작되었다. 19세기말 미국 전체에 서 가정부로 분류된 여성의 60%는 외국 태생의 백인이었다. 이 당시 미 국 태생의 백인 여성은 전체 가사서비스의 24%를, 그리고 흑인 여성은 17%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듯 여성 노동력의 인종별, 민족간 이동의 연쇄를 통해, 1900년이 되면 사무직의 1/3을, 나아가 1920년이 되면 사 무직의 과반수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었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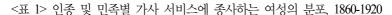
<그림 1> 20세기 초 미국의 가내 하인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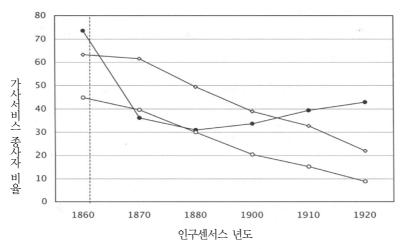
이와 같이 가내하인에 대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가고 있었지만, 흑 인 여성의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특히나 흑인 기혼 여성들은 자식들 교육 에 필요한 돈을 벌기위해서라도 중간계급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해방된 흑인 성인 남성들에게는 거의 일자리가

¹⁸⁾ Strasser, Never Done, 165; Evans, Born for Liberty, 215.

¹⁹⁾ 위의 사진은 1905년, 위스콘신 주의 블랙 리버 펄스(Black River Falls)에 위치한 가정에서 근무하는 가내하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무려 7 명의 여성 가정부를 업무 별로 거느리고 있었으니 상류층 가정이었을 것이다. 출처: Christina Hardyment, From Mangle to Microwave: The Mechanization of Household Work (Cambridge: Polity Press, 1988), 35.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1880년대 이후 해방노예들의 후손인 흑인들이 남부 농촌으로부터 북동부 도시로의 거대한 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농이나 소작인으로서 남부에 남아있거나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북부로 이동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도 흑인 남성들의 경우 공장 등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사대 역할 이외에는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기껏해야 서비스업종에서나 취업이 가능했다. 이들은 취업 상의 차별 뿐 아니라 거주지역의 차별로 인하여 이른바 게토를 형성하면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흑인 기혼 여성들의 경우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정부 자리라도 마다할 수 없었으며, 마다하지도 않았다.20)





● 흑인여성 ── 미국 태생의 백인여성 ── 백인 이민 여성

[출처: Enobong Hannah Branch and Melissa E. Wooten, "Suited for Service: Racialized Rationalization for the Ideal Domestic Servant from the Nineteenth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ocial Science History 36, 2 (Summer 2012), 181.]

Allan H. Spear, Black Chicago: The Making of a Negro Ghetto, 1890-192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Elizabeth H. Pleck, Black

인구센서스에 기초한 위의 표가 명료하게 보여주듯이, 1860년 미국 태 생의 백인여성이 가정부로 일하는 비율은 전체 백인 여성 노동력에서 절 반 이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00년이 되면 20% 정도로, 그리고 1920 년이 되면 9%를 차지할 뿐이었다. 이들에게는 이 직종이 경멸과 수치심 을 불러일으키는 업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상 대적으로 더 많이 열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공장을 비롯한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재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920년대가 되면 백인 미혼 여성들은 거의 가내하인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주요 집단인 백인 이민 여성들은 1870년 이후 첫 번째 집단을 뒤따라 비슷한 속도로 가사서비스 업종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1870 년에는 전체 일하는 백인 이민 여성들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던 상 황이 1920년이 되면 22%로 급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흑인 여성들의 경 우는 달랐다. 1880년 이후로 오히려 가정부로 일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20년이 되면 전체 흑인 여성 노동력 중에서 40% 이상을 차 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1900년 이후 가사서비스 시장은 소수인종, 여기서 는 흑인 여성이 대표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러니까 1870년 이후로 전국적으로 가내하인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특히 1880년에서 1920년 사이 미국 태생이건 외국 태생이건 백인 여성 이 가사서비스 직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흑인 여성은 오히려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었다.21)

결과적으로, 1890년과 1920년의 30년 동안 백인 여성 가정부들의 숫

Migration and Poverty: Boston, 1865-1900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Elizabeth Clark-Lewis, Living In, Living Out: African Americans Domestics in Washington, D.C., 1910-1940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4), Enobong Hannah Branch, Opportunity Denied: Limiting Black Women to Devalued Work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11) 등 참조.

²¹⁾ Enobong Hannah Branch and Melissa E. Wooten, "Suited for Service: Racialized Rationalization for the Ideal Domestic Servant from the Nineteenth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ocial Science History* 36, 2 (Summer 2012): 180-82.

자가 1/3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흑인 여성 가정부들의 숫자는 오히려 43%나 급격히 늘어났던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 백인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가정부 일을 그만 두었지만, 흑인 미혼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재정적이유 때문에 결혼 후에도 아이들을 낳은 후에도 가정부 일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중간계급 가정의 백인 주부와 그 집에서 일하는 흑인 가정부 관계는 마치 노예제 하의 주인-하인 관계를 연상시켜 가뜩이나 낮은 가내하인의 사회적 지위는 오히려 강화되었다.22)

결국 가내하인의 중요성은 감소하게 되었지만, 북부 도시들에서의 흑인 가정부의 고용은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미국 특유 의 역사에 기초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내하인의 감소라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을 때,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는 흑인 여성들을 가내하인으로 만드는 예외를 낳고 있었다. 1960년대 민권 운동이 전개되기 이전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흑인들이 여타 번듯한 직장 에서 일하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특히나 아이들이 딸린 기혼 흑인 여성들에게 선택이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러다 보니 1920년의 경우, 6%의 미국 태생의 백인 기혼여성과 7%의 외 국 출신의 백인 기혼여성이 일하는 여성이었다면, 흑인 기혼여성들은 33%나 일을 하고 있었다. 상대방 백인 인종보다 4-5배 많이 유급 노동자 로 존재했던 것이다.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당시 흑인이 미국 전체 인 구의 대략 10%를 차지한데 반하여, 일하는 기혼여성의 35%는 흑인 여 성이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흑인 기혼여성이 백인 기혼여성보다 3.5배나 많이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1920년대를 통한 일련의 이민법 등 1921년의 존슨 법(Johnson Act), 1924년의 존슨 레이드 법(Johnson-Reid Act), 그리고 1929년 국적기원법(National Origins Act)]은 이민 자 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할당제(quota)를 통해 동유럽이나 남유럽에서의

²²⁾ Ibid. 185-86.

이민을 현격하게 제한했다. 결국 1920년대 백인 미혼여성이 빠져나간 자리는 흑인 여성들 몫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흑인 여성들은 1900년에는 미국 전체 가정부의 1/3을 차지했지만, 1930년이 되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²³⁾

새삼스레 강조하지만, 당시 미국에서 일을 하던 여성들 중에서 가장 많 이 취업한 직업은 가사 서비스였다. 그렇지만 19세기 가내하인들의 취업 형태는 다양했으며, 통계 자료 또한 부정확했다. 그나마 여성의 취업에 대한 통계가 확보된 최초의 해는 1870년이었다. 따라서 1870년부터는 우 리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70년의 인 구센서스는 미국 내 1 가구당 약 0.12명의 가내하인이 존재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즉, 8.4 가구 당 1명의 가정부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여덟이나 아홉 가정 중에서 한 가정만이 하인을 부릴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하튼, 1870년 당시 미국 전역에는 약 2백만 명의 여 성이 유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무려 그 중 절반이 가정부로 일하 고 있었다. 이는 남녀 전체 노동력의 1/12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인 력이었다. 사실상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1940년까지도 인구 센서스에 여성 노동력 중에서 가장 큰 고용집단으로 남아 있었다.24) 그 런데 1870년에서 불과 30년 뒤인 1900년이 되면 비록 가내하인의 숫자 는 절대적으로는 증가하지만, 그들이 중간계급 가정을 위해 일하는 비중 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15 가구에 1명꼴로 하인이 존재할 뿐이었다.25)

그러니까 1870년과 1900년 사이에 가내하인들의 공급은 중간계급의

²³⁾ Strasser, Never Done, 176; Mary B. Norton, et al., A People and A Nation: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6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1), 681-82

²⁴⁾ Strasser, Never Done, 163, 167; Cowan, More Work for Mother, 120.

²⁵⁾ Phyllis Palmer, Domesticity and Dirt: Housewives and Domestic Servants in the United States, 1920-1945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4), 8; Cowan, More Work for Mother, 99.

증가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된다. 분명한 것은 대략 1870년 이후 가내하인의 사회적 지위가 꾸준히 몰락하는 상황과 동시에 가내하인의 이직(離職)도 증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의 일자리 말고도 특별한 기술이 없이 취업이 가능한 판매직이나 사무직자리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870년만 해도 전체 취업 여성의 절반이나 되던 가내서비스업 종사자들이 1890년이 되면 31.1%로줄어들면서 1/3 이하로, 그리고 1920년이 되면 여성 노동력 중에서 겨우 11.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직업 분포상의 변화는 1870년에서 1920년이라는 반세기 만에 가사서비스업의 인기가 얼마만큼 급격하게 줄어들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말 20세초 미국중간계급에게 가정부의 문제는 질(quality)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였던 것이다.26)

또한 노동사가인 앨리스 케슬라-해리스(Alice Kessler-Harris)도 가내하인의 숫자가 1870년에서 1차 세계대전 발발 시기인 1914년까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 1870년 8.4 가구당 1명인 가내하인의 숫자가 1920년이 되면 18 가구 당 1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었다. 왜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을까? 그것은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가정부로 일하던 미혼 여성들이 기회가 될 경우 공장이나 세탁업 혹은 판매직 혹은 사무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내하인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천시 받는 직업 중의 하나였으며, 게다가 하루의 일이 언제 종료될지도 불분명한데다 개인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중간계급 이상의 가정에서 하인들이 급격하게줄어드는 '위기'를 낳았다. 그 결과 이들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머무는

²⁶⁾ Strasser, Never Done, pp. 167~168; Robert S. Lynd and Helen M. Lynd, Middletown: A Study in Modern American Culture (New York: A Harvest/HBJ Books, 1929), 170, n. 22.

(living in) 가정부 대신 출퇴근을 하는(living out) 일용직 가정부, 즉 파출부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27) 이러한 변화는 언어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쉽사리 확인할 수 있었다. 1930년대가되면 귀족인척 하는 미국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에 당연히 사용하던 '하녀(servant girl)' 대신에 '청소하는 숙녀(cleaning lady)'라는 용어를 대신해 사용하게 되었다.28)

이러한 인구조사에 근거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사회학자 와이즈먼은 1920년대에 가내하인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는 그녀가 주로 코완의 책 <More Work for Mother>에 의존하고 이론의 틀로 판단한 결과, 1920년대 중간계급 가정에 본격적으로 가전제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가내하인의 급격한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29)

중간계급 가정에서 가내하인의 감소는 위에서 다루었던 통계 외에도 당시 중간계급 주부들이 주로 구독하는 여성 잡지들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들 잡지에 실린 삽화를 보면, 적어도 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집안 주인은 가사 일을 감독하거나, 그 일의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고 있는데 비해, 가내하인들은 "아기 기저귀를 갈"거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하"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 말이 되면하녀들이 삽화에서 사라지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정주부 혼자서 하고 있었다.30) 그러니까 1920년대가 끝날 무렵이면 미국 사회가 가정주부들이 집안일을 전부 해치우는 상황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다는 의미기도했다. 또한 이러한 장면들이 여성잡지들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1918년의

²⁷⁾ Alice Kessler-Harris, Out to Work: A History of Wage-Earning Wome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113 and 345, note 9.

Penny Sparke, Electrical Appliances: Twentieth Century Design (New York: E. P. Dutton, 1987), 10.

²⁹⁾ Wajcman,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 85.

³⁰⁾ Cowa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Home," 10.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1929년 대공황의 시작 사이의 10여 년 중간계급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의 주체가 가내하인에서 가정주부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3. '전기하인'으로서의 가전제품의 출현과 확산

(1) 초창기 가전제품(1880년대- 1910년대)의 보급

가내하인의 문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지던 문제 중의 하나였다.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19세기 미국의 경우 특히 남북전쟁이 종료된 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일터 와 가정이 확실하게 분리되고, '가정성(domesticity)'이라는 이념 하에 여 성은 집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가치관이 중간계급 가정에 뿌리내리게 되 었다. 육아에서부터 요리, 청소, 세탁 등 이 모든 일을 커다란 집에서 주 부 혼자서 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가내하인 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1880년대 이후 산업혁명의 심화로 공장에서 노 동력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도시의 팽창으로 판매직이나 사무직 같은 서비스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미혼 여성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가 만 들어졌다. 가뜩이나 천시 받던 가내 서비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이러한 일자리로 계속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부터 증가하던 중간계급의 가정부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점차 모자라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인 문 제'는 이들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여성잡지들을 통해서 널리 공유되었으 며, 엘리트 여성들이 만든 가정과 관련된 단체들에서도 당장 해결해야할 중차대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31)

그렇다면 1870년에서 1900년 사이 혹은 1870년에서 1차 세계대전 이 전까지 중간계급의 가정에서 가내하인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가내하

³¹⁾ Sparke, Electrical Appliances, 9.

인들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동안, '전기하인'으로 불린 가전제품들이 과연 가내하인이 하던 일을 진정으로 대체하게 되었던가? 또는 중간계급 가정에 '전기하인'이 하나둘씩 등장한 이후 이들 가정에서 가내하인들이 불필요해지면서 점차 혹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던가?

1882년 에디슨이 뉴욕시 맨해튼 펄 가(Pearl Street)에 세계 최초로 발전소를 건설한 이후 빛 에너지로서 전기를 전등에 사용했던 전력회사들은 처음에는 전기를 모든 가정에까지 가가호호 제공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비록 1년 내에 1만 3천 개의 전구를 밝힐 수 있었지만, 1884년까지도 수요자의 절대 다수는 기업체나 사무실이었으며, 가정의 경우 겨우 5백 집에 전력을 공급했을 뿐이었다. 그것도 뉴욕시민들에한해서 말이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1890년, 당시 웨스트 오렌지에 위치한 에디슨 연구소에서 에디슨의 조수로 근무하던 아서 케넬리(Arthur E. Kennelly, 1861-1939)는 "잔디 깎는 기계, 카펫 청소기, 신발닦이에 모터가 응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가 모터를 통해 가정에 사용된다면 집안일은 허드렛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전기를 "자발적 노예(willing slave)"로 제시하고 있었다.33) 마치 가내하인 대신전기를 노예처럼 부려 집안의 허드렛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

³²⁾ Bill Bryson, At Home: A Short History of Private Life (London: Black Swan, 2010), 196; Cowan, More Work for Mother, 91.

³³⁾ A. E. Kennelly, "Electricity in the Household," in Cyrus F. Brackett et al., Electricity in Daily Life: A Popular Account of the Applications of Electricity to Every Day Us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0), 252. MIT의 전기공학 교수이자 훗날 미국 과학기술 정책을 설계했던 바네버 부시의 회상에 의하면, 케널리는 인도의 봄베이, 그러니까 오늘날 뭄바이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유선전신 엔지니어로 활동했다. 1887년 에디슨 연구소로 와서 6년간 에디슨을 도와 연구소의 수석 조수로 일했다. 이후 그는 1902년에 하버드 대학의 전기공학교수로 임명되어 1930년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했으며, 1913년에서 1925년까지는 MIT의의 전기통신 교수로도 활동했다. Vannevar Bush, "Biographical Memoir of Arthur Edwin Kennelly, 1861-1939," presented to the Academy at the Autumn Meeting, 1940, 83-85.

각을 피력한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전기 관련 회사들이 '전기 하인'이라는 개념을 전개하면서 중간계급 가정에서 줄어들고 있던 가내하인들을 가전제품들이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이러한 케넬리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때까지도 전기모터가 가사기술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1893년 전기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기회가 왔다. 시카고에서는 이른바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4백 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박람회가 열렸 다. 흥미롭게도 이 박람회는 미래지향적 '모형 전기 부엌(model electric kitchen)'을 만들어 전시했다. 비록 그곳에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들이 나 와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림의 떡이었다. 일단 자신의 집에 발 전소 시설을 갖출 수 없다면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전력을 제공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전기를 집 안까지 끌어온다 치더라도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전기 오븐을 사용할 경우 예열만 하는데도 1 시간이나 걸렸다. 게다가 6백 와 트 수준으로는 스토브 윗면과 오븐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 까 당시 수준으로 집안에 가전제품을 설치해 사용한다는 것은 최상의 부 유층이나 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1893년 미국 경제는 대규모 불황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다. 6개월 내에 무려 8 천 개가 넘는 기업이, 156 개의 철도회사가, 4백 개의 은행이 파산했다. 총 노동력의 20%에 해당하는 1백만 명의 노동자가 실업상태에 빠지고 최종적으로는 1898년이 되서야 미국 경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1890년대 대부분의 중간계급 가정에서 전기 관련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정에서도 이직하는 가정부를 붙잡지 못하거나 붙잡기 위한 특단 의 조치 혹은 인센티브가 필요했을 것이다.34)

³⁴⁾ Bill Bryson, *At Home*, 197;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김덕호 외 옮김 (휴머니스트, 2011), 419-20.

전기가 가정에 공급되고 첫 몇 년 동안은 전기 기기들과 전력 시스템을 연결할 플러그나 소켓 이라는 인공물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19세기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플러그와 소켓이 만들어져 가전제품들로 불릴수 있는 것들을 전등 부속품과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초창기전기가 가정에 공급되고 있을 때는 거의 일몰 이후 전등만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등 이외의 전기 기기들을 집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전기 토스터를 사용하고 싶으면 사다리를 타거나 의자에올라가 천장에 매달린 전등에 부착된 플러그에 꽂아 사용했다. 그나마 얼마 안 있어 벽에 부착된 램프소켓이 만들어져 고생을 덜 수 있었다. 그렇지만 천장만큼은 아니어도 전등은 여전히 벽의 높은 곳에 위치했으며, 따라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긴 전선의 사용은 불가피했다.35)

가전제품이 가내하인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20세기 초에도 계속 이어졌다. 전기를 이용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가내하인 대신에 더 값싼 비용에, 더 효율적으로 가정에서의 허드렛일을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1904년, 과학기술 교양잡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은 '가정에서의 전기'라는 글에서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손과 발을 사용하는 기존의 재봉틀 대신에 전기로 작동하는 재봉틀 은 돌아가는 속도를 꼼꼼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바늘 밑으로 옷(감)을 밀어 넣는 것 말고는 특별히 힘이 들지 않다보니 심지어 병원에 있는 환자조차도 이 재봉틀을 조작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36) 그런데 이 기사에 소개되어 있는 재봉틀을 비롯한 다섯 개의 가전제품 음식을 식지 않게 하는 보온용 냄비(chafing dish), 보온 백(hot-water bag), 다리미, 머리를 마는데 사용하는 컬링 아이론 전열기(curling-iron heater) - 사진들[그림 2-1~2-5]을 자세히 보면 모든 제품들이 긴 전선을 드리우고

³⁵⁾ Bryson, At Home, 199.

^{36) &}quot;Electricity in the Household," Scientific American 60, 12 (March 19, 1904): 232.

전등이 위치한 소켓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램프-소켓을 이용하려니 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제약 이 많았던 가전제품들이었다.



<그림 2-1> 재봉틀



<그림 2-2> 보온용 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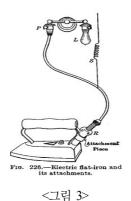


<그림 2-3> 보온 백



<그림 2-4> 다리미 <그림 2-5> 컬링 아이론 전열기

특히 이 잡지에서 소개된 다리미[그림 3]는 초기 전기다리미로서 당시 는 '플랫-아이언(flat-iron)'으로 불렸다.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한 전문서적의 또 다른 그림 설명을 보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 다.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착탈(着脫)이 가능한 기다란 전선으로 다리 미와 램프-소켓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선의 한 쪽은 다리미 에 연결하고 나머지 전선의 끝은 램프-소켓에 연결하여 플러그의 스위치 를 좌우로 돌려 다리미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차단하고 있었다.37)



따라서 가전제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구에 사용되는 소켓과는 별도의 작은 전기 모터가 개발되어야했다. 모터는 전자기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모터를 장착한 청소기나 세탁기, 냉장고는 강력한 힘으로 청소나 빨래를 해치우고, 냉각 기능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소형 전기 모터는 에디슨 회사가 주장하는 직류와 니콜라 테슬라를 지지하는 웨스팅하우스 회사

가 주장하는 교류 간의 전류 전쟁이 끝나고 교류로 표준화가 진행된 이후에나 가정에서 사용가능해졌다. 그것도 전기의 가격과 가전제품의 가격이 중간계급 주부가 생각할 때 충분히 낮아진 다음에나 가능해졌다. 이때가 1910년경이었다. 다행히도 당시 미국에서는 다른 경쟁국들과는 달리일찍이 전기와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표준화는 경쟁하는 전기 회사들 간에 특허 사용을 서로 용인함으로써 더욱 심화되었다. 전기설비 업체들은 재빨리 '전국전기조명협회(National Electric Lighting Association, NELA)'라는 전국적 조직을 만들었으며, 전기제조 업체들도 '전국전기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를 만들었다. 나아가 미국 연방정부 또한 이러한 '상호 특허 인가(cross-licensing)'를 권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표준화 진행을 도왔다. 그리하여 1910년까지는 미국 전체 가정에 60 사이클의 교류로 120 볼트를 제공하는 하나의 전류로 표준화되었으며, 따라서 전기관련 회사들은 미국 내에 "동일한 표준의 대량 생산 기술"로 생산된 전기 제품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E. S. Keene, Mechanics of the Household: A Course of Study Devoted to Domestic Machinery and Household Mechanical Appliances (New York: McGraw-Hill Company, Inc., 1918), 327.

수 있었다.³⁸⁾ 따라서 1910년 이후에나 전기 기기들이 본격적으로 가정용 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2) '전기하인'의 이상과 현실

과연 가전제품은 점점 줄어드는 가내하인을 대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즉, 가사기술의 실현인 가전제품들은 가사노동의 양을 줄여주거나 (노동절약) 가사노동의 시간을 줄여주기(시간절약)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이었던가?

일찍이 1912년, 제너럴 일렉트릭 사는 광고를 통해서 전기가 당대의 사회문제인 가내하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광고 1] 즉, "힘든 일을 함으로써, 허드렛일을 없앰으로써, 가정에서의 모든 일을 더 쉽게 만듦으로써, 전기는 하인들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라고 말이다. 광 고에 의하면, 전기 오븐을 통해 요리를 쉽사리 할 수 있으며, 토스터, 커



<광고 1>

출처: Scientific American, vol. 56, no. 15 (April 13, 1912), p. 322 피추출기(percolator), 보온용 냄비 등 음식과 관련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전기를 이용한 재봉틀,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통해 주부가 감당해야하는 힘든 일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전기는 "청정, 안전, 그리고 편리"로 무장하여 가정에 빛, 열, 힘을 제공할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이러한주장대로라면 중간계급가정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구태여 가정부의 손길이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³⁸⁾ Cowan, More Work for Mother, 92-93.

그러나 많은 초기 가전제품들은 하인을 대신하기는커녕 이직하려는 하인들을 붙잡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게다가 이것들 중 다리미를 제외하고는 힘든 가사노동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세계대전 전후의 광고들에는 가전제품을 가정주부가 아닌 가내하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싣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직하려는 혹은 잠재적으로 이직할 수도 있는 가내하인들에게 가전제품을 사용할 경우 집안에서의 일들이 "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한 예로서, 1918년 <레이디스 홈 저널(Ladies' Home Journal)>에 실 린 광고[광고 2]를 보자.³⁹⁾ 이 광고는 가내하인이 줄어들고 있는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름 타결책으로서 가사노동의 절약을 위한 몇몇 도구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주로 청소 및 설거지와 관련된 것들이며, 또한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은 가정주부라기보다는 유니폼을 착용한 가내하인이었다. 주 제품은 청소와 관련된 도구들이었으며, 기계화된 인공물이라고는 기껏해야 청소기와 식기세척기(dishwasher)인데, 이마저소수의 가정들만이 사용하고 있었다.



<광고 2>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초창기 가전제품들은 감소하고 있던 가내하인들을 대신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감소를 막는 혹은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인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고용주로서의 우선적인 반응은 가내하인들에게 일하는 조건들이 나아졌다는 표시로서 "더 나은, 더 효율적인" 가전제품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이 더 쉬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가사노동을 다른 행태의 일자리보

³⁹⁾ Ladies' Home Journal, 1918, in Strasser, Never Done, 177.

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초창기 많은 노동절약적, 시간절약적 도구들로서의 가전제품들은 가내하인들을 대체하기 보다는 그들을 붙잡아두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등장했다고 이해해야 한다.40)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에서 1920년대 동안 많은 여성 잡지들이나 가정 매뉴얼 등은 '전기하인'으로서의 가전제품이 가내하인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과 가전제품이 '가사노동 절약'의 징표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었다.⁴¹⁾ 1919년 2월 1일자, 당시 중간계급이 가장 즐겨보던 주간지인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에 실린한 광고[광고 3]를 보자.

1886년부터 전선과 케이블을 주로 생산하던 전국 규모의 하비셔 (Habirshaw)는 절연 전선(insulated wires)과 관련된 광고를 전면으로 실



<광고 3>

출처: Saturday Evening Post (Feb. 1, 1919), p. 107.

었다. 그런데 광고의 제목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가정의 전기하인(The ELECTRICAL SERVANT in the HOME)" 도대체 가전제품 광고도 아 니고 절연 전선 광고인데도 왜 전기 하인이 표제어가 되었을까? 이 전면 광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현대 가정은 과학적 노선에 따라 조직되고, 준비되고,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의 주부는 필연적으로 가정학(household economics)의 전문가이다. 노동과 그 것[노동]의 비용 상승은 여느 산업 매 니저에게처럼 그네[주부]에게도 문제

⁴⁰⁾ Sparke, Electrical Appliances, 10.

⁴¹⁾ Forty, Object of Desire, 211-12.

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가사노동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소와 요리라고 하면서 가전제품들, 즉 진공청소기, 세탁관련 제품, 레인지, 토스터, 조리기구 등이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있다고 소개한다. 나아가 이 가전제품들은 주부들에게 이미 친숙해있으며, 가정부와 비교하여 "더 저렴하면서도 덜 의존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기와 관련된 모든 인공물들은 절연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 때문에 작동하므로 자신의 회사같이 믿을 수 있는 전선 관련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42)즉, 가전제품을 가정에서 더 많이 사용할수록 자신의 제품 또한 더 많이 팔릴 것이기에 가내하인 대신에 가전제품이라는 '전기하인'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와 관련된 미국의 현실은 사뭇 달랐다. 대표적인 소규모 도시였던 인디애나 주 먼시(Muncie)를 보자.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학자였던 로버트 린드와 그의 부인인 헬렌 린드가 선택한 이 도시는 고전 반열에 오른 그들의 책에서는 '미들타운(Middletown)'이라는 익명의 도시로 등장하고 있다. 이곳의 경우, 조사의 대상 시작연도인 1890년에는 95% 이상의 가정에 전기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1916년이 되어서야60%의 가정이 주로 조명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의 시점인 1925년이 되면 이곳 가정의 99%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다. 전기가 일상에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43)

그러니까 1920년대가 되어야 전기가 일반 가정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시기 광고가 가전제품 판촉에 엄청난

⁴²⁾ Saturday Evening Post (Feb. 1, 1919), 107.

⁴³⁾ Robert S. Lynd and Helen M. Lynd, *Middletown: A Study in Modern American Culture* (New York: A Harvest/HBJ Books, 1929), 98. 린드 부부는 이 책에서 인구 3만 정도의 도시인 먼시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이 책은 조사 대상의 검토시기를 1890년부터 1925년의 35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1890년이 되어야 비로소 보다 신뢰할만한 통계자료가 갖추어졌으며, 또한 1886년에 가서야 가스가 미국 가정에 공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Ibid.*, 5-6.

영향을 끼쳤음을, 나아가 소비사회 구현에 커다란 공헌을 했음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에디슨 가전회사(Edison Electric Appliances, Co., Inc.)는 '핫포인트(Hotpoint)'라는 브랜드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이 회사는 1920년대 전반 가정부를 둘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부들혹은 가정부가 이직하여 어쩔 수없이 혼자서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기존의 토스터, 다리미, 고대기(curling iron) 등의 소형 가전제품 라인을 '핫포인트 서번트(Hotpoint Servant)'라고 명명하여 광고했다. 자사의 제품들이 가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거나 가정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었다.44)

무엇보다도 이 시기 제너럴 일렉트릭은 가전제품의 대표적인 광고주 중하나였다. 이 회사는 일찍이 1922년 7월, 1920-30년대 신화적인 광고인이자 "문화 영웅" 중의 한 사람인 브루스 바튼(Bruce Barton, 1886-1967)이 공동 소유주로 있던 광고회사인 Batten, Barton, Durstine, and Osborn (BBD&O)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가 설득한대로, 이 계약을 통해자신의 회사 제품들의 판촉을 하나의 통합된 상징을 지닌 광고 캠페인으로 진행했다. 1920년대를 통해 이 회사의 광고비용은 1922년의 2 백만달러에서 1930년에는 1천 2 백만달러로 급증했으며, 매년 전국적 규모의 잡지들 지면을 통해 2 백 번 가량의 광고를 함으로써 미국의 모든 가정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인지하게 했다. 광고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바른은 전국전기조명협회나 가정학협회를 비롯한 지역의 여성단체들, 지방정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45)

제너럴 일렉트릭의 광고 하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 회사가 주부들

⁴⁴⁾ 스전 스트러서, 『낭비와 욕망』, 김승진 옮김 (서울: 이후, 2010), 282. 스트러서는 이 제품이 경제적으로 가정부를 둘 수 없는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추론했지 만, 필자는 이 회사가 가정부를 구할 수 없는 중간계급 가정을 위해서 '전기하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도 이러한 시리즈 제목을 구상했을 것이라고 본다.

⁴⁵⁾ David E. Nye, Electrifying America: Social Meanings of a New Technology, 1880-1940 (Cambridge, MA: MIT Press, 1990), 268.

을 설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예컨대 1925년의 한 광고는, 아래의 문 구처럼, 전기를 사용해야만 좋은 어머니로서, 즉 가정주부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 성공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좋은 어머니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을 우선 합니다. 좋은 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시간에 바닥을 쓸지 않습니다....좋은 어머니는 집이 어둡다는 이유로 저녁시간의 오붓함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눈에 맞춰 방을 환히 밝히려면 시간당 5 센트도 들지 않습니다....시간당 몇 센트면 전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에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46)

광고의 주장대로라면 1 달러 이하의 돈으로 무려 하루 20시간 이상이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자식들을 제대로 "돌볼"수 있으며, 저녁 시간을 가족들과 "오붓하"게 보낼 수 있으며,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도 신경"쓸 필요가 없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제너럴 일렉트릭 광고를 보자. 바튼이 만든 광고였다. 청소기나 다리미 혹은 세탁기 따위의 특정 가전제품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품들을 작동시키는 전기모터를 소개하고 있었다. 이 광고는 "자그마한 전기모터가 할 수 있는 가사 업무를 하는 여성은 시간당 3 센트를 위해 일하고 있다. 시간당 3 센트로 팔기에는 인간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면서 가정주부에게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47 무엇 때문에 당신의 부인이 그 귀한 시간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게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가? 불과 몇 센트면 '전기하인'들이 알아

⁴⁶⁾ 제인 브룩스, 『인간이 만든 빛의 세계사』, 박지훈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13), 209-10.

⁴⁷⁾ 광고업자로서 바튼은 가장 성공적인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결과 "인간 삶의 개선이나 고결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념이기도 했다. Warren I. Susman, Culture as History: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Society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Pantheon, 1984), 128.

서 잘 해결해줄 텐데 말이다. 이 광고대로라면 이제는 시간 당 3 센트로 미국의 주부들은 전기 문명 하에 가전제품의 혜택을 누리며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중간계급의 남편들이 이러한 광고를 보고도 가전제품 구입을 망설였다면 아마도 대부분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광고들은 남편들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주부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이었다. '허드렛일(drudgery)'이라 불린 많은 일들이 여성들 몫이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이 모든 일들이 허드렛일로 분류되었다. 열심히 해도 절대 티도 안 나는, 그러나 하지 않으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 그런대도 사회적 통념은 이런 힘든 일들을 그저 '허드렛일'이라 부르고 대단치 않은 일로 치부했다. 그런데 이런 허드렛일들을 '전기하인'이 해결해주겠다고, 나아가 허드렛일 로부터 주부들을 해방시켜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많은 가전제품들이 허드렛일 운운하면서 주부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 지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가전제품은 전기 관련 업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가격 면에서도, 품질 면에서도 중간계급 주부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 결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가전제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충분히 구입 가능한 가격으로 인하된 다음에서야 중간계급 가정에 더욱 널리 가전제품들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가사노동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온 '노동절약적'가 전제품들은 사실상 1920년대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는 것이다. 전기가 미국 가정에 보급되던 초기 단계인 1880년대는 기 껏해야 전기로 움직이는 선풍기가 선보였으며, 1890년대와 1900년대에서나 전기다리미와 토스터가 그 뒤를 이어 나타났을 뿐이었다. 이후, 예컨대,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우 1913년까지도 여러 종류의 토스터나 다리미심지어 전기레인지를 생산했지만, 1925년에서 1930년 사이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가전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냉장고

나 세탁기 그리고 진공청소기가 그 대표적인 인공물이다.48)

<₩ 2>	정기가	곳급되던	1 300	가구에서의	가정제품	소유	필라델피아,	1921

	가난한 주택 (산업 노동자)	보통의 주택 (가격 \$4,500)	현대적 주택 (10~12년 된 집)	상류층
다리미	64%	60%	87%	90%
청소기	33	40	83	84
세탁기	11	5	28	32
선풍기	2	6	10	36
커피 추출기	1	4	6	19
전기 레인지	_	_	_	3.4
냉장고	_	_	_	-
라디오	_	_	_	_

출처: C. J. Russell, "Philadelphia Survey." Proceedings, NELA Convention, 1921.

비록 특정 도시에 국한된 통계지만, 전국전기조명협회(NELA)가 조사한 위의 표는 1921년 대도시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의 상황을 통해 당시가전제품이 얼마만큼 미국 가정에 보급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리미의 경우는 노동계급에까지도 제법 널리 보급되어 있지만, 청소기만 해도 평균 소득의 가정에서는 40% 정도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세탁기의 경우는 단지 5%만 보유하고 있었다. 세탁기의 경우는 1910년 전후에 건축된 가정조차도 세탁기를 겨우 28%를 지니고 있었다. 하물며 냉장고는 1천 3백 가구 중에서 단 한 집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요리 시간을줄여주고 힘든 일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전기 레인지의 경우, 중간계급 가정까지도 아예 전무하고 상류층 가정만이 단지 3.4%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냉장고나 전기 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은 1921년에도 여전히 중간계급의 가정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49)

⁴⁸⁾ Sparke, Electrical Appliances, 27.

⁴⁹⁾ Nye, Electrifying America, 267.

이렇듯 1920년대 초까지는 중간계급 이상의 가정에서도 가전제품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 시기까지도 '전기하인'이 가내하인 몫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었다. 차라리 가정부들이 썰물 빠지듯 이직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들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가정에서는 다리미나 청소기,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이들의 가사노동 시간을 줄여주거나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1920년대 중반이 되면 가전제품들이 중간계급 가정의 일상생활에 속속 자리 잡게 되어, 앞에서 언급했던 가정경제학자인 페티슨은 이제는 가전 제품으로 인해서 주부들이 가정의 허드렛일을 벗어날 수 있으며, 마침내 가정에서의 노예에 가까운 삶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 있게 "여성들을 접시, 목욕통, 부엌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실현되고 있으며, "이제는 여성들이 새로이 등장한 수단과 문화를 터놓고 받아들여 평소에 하던 일의 효율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50)

(3) 산업용 제품으로서의 전기제품

20세기 초까지도 전기 회사들은 미국의 모든 가정에 전기를 제공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사기업인 이들은 이윤이 발생하기 힘든 농촌은 아예 포기하고 있었고, 그나마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나 전기를 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51) 그러니 선풍기건 헤어

⁵⁰⁾ Mary Pattison, "The Abolition of Household Slavery," in *Giant Power: Large Scale Electrical Development as a Social Factor*, ed. Morris Llewellyn Cooke (Philadelphia: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25), 126; 브 룩스, 『인간이 만든 빛의 세계사』, 196에서 재인용.

^{51) 1930}년대 대공황이 확산되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를 통해 많은 유럽의 국가들보다 뒤져있던 미국의 전기 보급률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Ronald C. Tobey, Technology as Freedom: The New Deal and the

드라이어 혹은 다리미 같은 소규모 전기 제품 조차도 전력 수요 증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피크타임 이외에는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들은 그 용도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90년대에는 우선적으로 운송에너지로서 도시의 전차 노선과 기차 노선에 전기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1890년대 이후 20세기 초까지도 전기가 주로 응용된 분야는 가정이 아닌 상업과 산업 분야였다. 전기 선풍기를 제외하고는 전기다리미조차도 우선적으로는 양복점과 세탁소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전기토스터 또한 호텔이나 기숙사 등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었다. 에디슨의 첫 발전소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1912년까지도 전력이 공급되는 가정은 미국에서 불과 16%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가정은 집작할 수 있겠지만 중간계급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였다.52)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력회사들은 여하히 부하율(負荷率, load factor)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만 했다. 특히 낮 시간 동안 전력 사용을 늘여야 만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가정에서도 전력소비를 이끌어내야만 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인공물들이 만들어져야만 했다. 주로 요리와 난방이 가정에서 전력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예컨대, 남캘리포니아에디슨 회사(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 SCE)는 1904년 경영상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었다. 즉, 낮 시간에 "거대한 증기 터빈들이할 일 없이 놀고 있"는 긴박한 지경에 있었던 것이다. 비록 부근의 로스앤젤레스의 인구가 급속도록 팽창하고 있었고 1900년 이후 대부분의 가정에 전등이 설치되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않았다. 더 많은 가정용 기기들을 주부들이 사용해주어야 그나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있었다. 그리하여 이 전력회사는 가전제품을 팔기위한 "공격적이고, 직접

Electrical Modernization of the American Hom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참조.

⁵²⁾ Sparke, Electrical Appliances, 27; 브룩스, 『인간이 만든 빛의 세계사』, 189.

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그렇지만 램프-소켓 설비에 맞는 6 암페어 이상의 제품-예를 들어 전기 레인지 - 은 일부러 판매하지 않았다. 과부하가 걸릴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이었다. 이 회사는 자체 전시장을 열고, 신문이나 회람 등을 통해 가전제품을 선전하시 시작했다. 심지어 전기다리미나 커피 추출기를 빌려주기도 하고, 할부 판매도 실시했다. 1907년이 되면 남성으로 구성된 전문가 세일즈맨을 집집마다 방문시켜 가전제품의 유용성을 알리면서 직접 판매를 시도했다. 그 결과, 1911년에는 15,438 개의 다리미, 4,634 개의 커피 여과기, 3,440 개의 토스터, 기타 제품 2천 개를 팔 수 있었다. 1915년이 되면 총 141,705 개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53) 그렇지만 당시 팔린 가전제품들이 과연 가내하인들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혹은 주부들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확인키 어렵다.

재차 강조하지만, 미국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창기 가전제품은 6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램프-소켓에 맞는 수준의 것만이 판매될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 있어 배선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통일이 안 되어 있었으며, 배선 상태도 좋지 못해서 조명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지 못했다. 집안에 들어온 전기와 연결되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 또한 제조업체에 따라 형태와 스타일이 다 달랐다. 게다가전기스토브나 냉장고처럼 평균 이상의 와트를 요구하는 가전제품의 경우집안의 배선을 아예 바꾸어야했다.54)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소규모의 가사기술만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가내하인을 대체할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었다.

많은 가전제품들이 원래는 가정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⁵³⁾ Forty, *Objects of Desire*, 186; James Williams, "Getting Housewives the Electric Message: Gender and Energy Marketi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Gender, Consumption, and Technology*, ed. Roger Horowitz and Arwen Mohun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8), 98~99.

⁵⁴⁾ 브룩스, 『인간이 만든 빛의 세계사』, 190.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우리가 당연히 가전제품으로 생각하는 청소기나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소형 전기모터조차도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이 인공물들은 가사기술의 일환으로 발 명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발명되고 계속해서 혁신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제품들의 발명가들도 가사노동과 관련되지 않은 남성들 몫이었다. 나아가 훗날 가정용으로 전환되었을 때도 위의 제 품들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물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세일즈 맨들에 의해 판매되었다.55)

즉 대부분의 초창기 가사기술은 "공식경제의 생산과정에서 비공식 가 정경제의 생산과정으로의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의 결과"인 것이 지 가내하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전기 관련 제품이 처음 출시되면, 그 인 공물이 가정에 보급되기 전까지는 생산영역에서만 활용되었다. 그 제품은 산업용으로 혹은 상업용으로 발명되었다가, 나중에 그러한 시장이 포화상 태에 빠진 이후에나 시장 확대의 목적으로 가정용 소비재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예컨대, 20세기 초 전기세탁기나 진공청소기 그리고 훗날 냉장고 가 그러했다. 이 인공물들은 가정에서 사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세탁산업 이나 청소산업 혹은 냉장산업의 분야에서 대규모로 사용되었었다. 그러다 기존 시장의 포화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가서야 가정용으 로 변신을 꾀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의 제품들은 일반 가정에 도입될 때 조차 초기에는 그 가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웬만한 중간계급 가정에 서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고 계속적인 기술혁신 덕분에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가격이 상당 히 떨어진 후에나 가정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56)

⁵⁵⁾ Cowan, "From Virginia Dare to Virginia Slims: Women and Technology in American Life," *Technology and Culture* 20, 1 (Jan. 1979): 61.

⁵⁶⁾ Wajcman,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 102-03.

그런데 이러한 시장 확대는 산업용이나 상업용 전기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의 몫이라기보다는 기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후발업체들이 새로운 시장 개발 차원에서 가정용 소비재 전기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1920년대 두 개의 자동차 회사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가정용 냉장고 시장에 덤벼들었다.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와 아메리칸 모터스(American Motors)가 그러했다. 전자는 1916년에 만들어진 '프리지데어(Frigidaire)'를 1919년에 사들여 자회사로 만들었으며, 후자는 최초의 가정용 냉장고로 알려진 '캘비네이터(Kelvinator)'를 사들였다. 1930년대를 통해 이 두 냉장고 회사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에서 나온 제품들과 더불어 미국의 냉장고 시장을 지배했다. 그리하여 1941년 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할 즈음에는 대략 미국 가정의 45%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거의 두 집 당 한 대 꼴로 냉장고를 보유하게된 것이다.57)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전제품이 개발된 것은, 혹은 가내하인이 불필요할 정도로 다양한 능력을 지닌 가전제품들이 시장에 나온 것은 1920년대 이후에나 가능했다. 그리고 이 때 쯤 이면 이미 가내하인은 충분히 중간계급 가정에서 빠져나갔으며, 오히려 개발 초기에는 가내하인들을 위한 가전제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비록 얼마 후에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하는 가전제품들 광고가 등장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1930년대쯤이면 대부분의 중간계급 가정에서도 가정부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점차 일주일에 며칠간 혹은 하루 중 몇 시간 동안만 노동력을 빌릴 수 있는 파출부를 부르게 되었다.

⁵⁷⁾ Sparke, Electrical Appliances, 25; Cowan, More Work for Mother, 138-39.

4. 나가는 말

우리는 본 논문에서 과연 중간계급 가정에서의 가내하인의 감소라는 사회변화가 기술변화, 즉 '전기하인'으로 불린 가전제품의 증가를 가져왔는지 혹은 거꾸로 가전제품의 증가가 가내하인의 감소를 가져왔는지를, 나아가 이 두 변화 사이에 원인과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되먹임 되는, 즉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연쇄적 인과관계를 가졌던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했다.

결론은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가내하인의 감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 은 19세기 후반, 특히 187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공장을 비롯 한 백화점, 연쇄점 등의 상점과 사무실 등의 서비스업 일자리의 급증으로 미혼 여성들에게 취업이 확대되면서부터였다. 반면, 전기 관련 회사들은 20세기를 넘어서면서 대낮에 남아도는 전력을 처리하는 시급한 문제들 때문에 닥치는 대로 전기 사용처를 찾아내고자 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궤도 전차를 비롯한 교통수단에 의존했지만 충분히 않았기 때문에 가정 에서 전등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기기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한편으로 는 전기다리미나 커피 추출기 같은 유형의 가전제품을 만들어 중간계급 가정에 판매하고자 했으나 판촉을 위한 이러한 제품들이 마치 가내하인 몫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전기하인'인양 광고를 통해 선전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신화일 뿐이었다. 이들은 세탁업에서 사용되던 세탁기술과 다림 기술, 의복업체에서 사용하던 재봉기술,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용되던 청소기술, 육류 냉장업에서 사용되던 냉장기술에 주목했다. 문제는 상업 적 용도로 사용되던 전기세탁기, 재봉틀, 청소기, 냉장고 등은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용량과 엄청난 가격 때문에 가정에서는 도 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정에 충분한 전기가 공급된 이후에나, 그리고 강력한 소형 모터가 만들어져 가정용 청소기나 세탁기, 냉장고 등에 장착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 다음에나 가정에 공급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쯤이면 웬만한 중간계급 가정에서 가내하인이 떠나간 다음이었으며, 이들 가정의 허드렛일이 주부 몫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가전제품들이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내하인의 감소를 가져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또한 가내하인의 감소가 원인이 되어 가전제품들 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비록 광고를 통해서는 '전기하인'이 가내하 인 대신 가사노동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 했다. 가전제품의 출현은 가내하인 몫을 강조했지만, 기껏해야 부분적으 로 가내하인의 감소를 보충하겠다는 의도의 결과인 것처럼 보일뿐이다. 크게 보면 가전제품은 가내하인을 대신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가내하인의 감소와는 독립적으로 전기 관련회사들의 자구책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더 많은 전기를 소비시킬 목적으로 뒤늦게나마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제품들을 가정용으로도 만들었던 것이다. 코완이 주장하듯이, 중간계급 가정에서의 가내하인의 감소와 가전제품의 증가가 분리할 수 없는 인과관계는 아니었다. 가내하인의 감소라는 사회변화와 가전제품의 증기를 통한 가정의 기계화라는 기술변화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독립적 사건의 연결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인과관계처럼 보이는 것은 전기 관 련 회사들의 광고 탓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내하인의 감소로 허드 렛일이 점차 중간계급의 주부 몫이 되면서부터 가전제품들이 본격적으로 가정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통계적으로 확인해보자. 1870년에는 8.4 가구 당 1 명꼴이 던 가내하인이, 1900년에 15 가구 당 1 명꼴로, 1920년이면 18 가구 당 한 명꼴로, 그리고 1930년에는 20 가구당 1 명꼴로 더 줄어들었다. 즉 5%의 가정주부들만이 이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0년이 되면 42 가구 중 1 가구, 즉 2.5% 이하의 가정에서만 이들이 가사노동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때쯤이면 미국의 중간계급 가정에서는 가내하인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모든 가사노동이 가정주부의 몫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물론, 전기하인이라 불린 가전제품들이 가사노동을 시간적으로

줄여주고, 힘든 일을 줄여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58)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가내하인의 감소와 가전제품 사용의 증가의 경 우, 가내하인의 감소는 가전제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던 1920년대 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870년에서 1900년 사이 혹은 1870년에서 1914년 사 이에 가장 크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언급하기에는 제법 큰 시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방향으로 보자면 가내하인의 감소가 가전제품 사용의 증가를 촉진한 것처럼 보인다. 당대의 광고가 그 렇게 주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한 현실은 전기 관련 회사들 이 청소기건 세탁기건 혹은 냉장고건 상업적으로 산업적으로 활용한 이 후에나 가정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 기 위해 가내 하인층이 감소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가전제품이 가내하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양 중간계급 주부들에게 '전기 하인'이라는 이미지 를 광고를 통해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었다.

⁵⁸⁾ Palmer, Domesticity and Dirt, 8. 미들타운(Middletown)의 경우, 1925년 집에 거 주하는 가내하인 대용으로 일 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하러오는 파출부들을 이 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이용하는 하루치 비용은 한 세대 전, 그러니까 동시 대 가정주부의 어머니 시절의 무려 1 주일 치 비용에 해당했다. 또한 가정부에게 지급하는 비용 또한 상당히 상승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경우, 1890년에는 가내하 인에게 주당 평균 3 달러를 지불했지만, 1925년에는 10에서 15 달러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3.3 배에서 5 배까지 상승했던 것이다. Lynd and Lynd, Middletown, 170-71.

Works Cited

1차 사료

- Kennelly, A. E. "Electricity in the Household," in Cyrus F. Brackett et al., *Electricity in Daily Life: A Popular Account of the Applications of Electricity to Every Day Us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0.

 _________. "Electricity in the Household," *Scientific American* 60.12 (March 19, 1904).
- Houston, Edwin J. *Electricity in Every-Day Life*, vol. 1 New York: P. F. Collier & Son, 1905.
- Lynd, Robert S. and Helen M. Lynd. *Middletown: A Study in Modern American Culture*. New York: A Harvest/HBJ Books, 1929.
- Keene, E. S. Mechanics of the Household: A Course of Study Devoted to Domestic Machinery and Household Mechanical Appliances. New York: McGraw-Hill Company, Inc., 1918.

Saturday Evening Post, (Feb. 1, 1919).

Scientific American, 56.15 (April 13, 1912).

2차 사료

- 제인 브룩스 『인간이 만든 빛의 세계사』. 박지훈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13.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김덕호 외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2011.
- 스전 스트레서. 『낭비와 욕망』. 김승진 옮김. 서울: 이후, 2010.
- 메릴린 옐롬. 『아내의 역사』. 이호영 옮김. 서울: 책과 함께, 2012.
- Bose, Christine E., Philip L. Bereano, and Mary Malloy. "Household Technology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Housework," *Technology and Culture* 25.1 (Jan. 1984): 53-82.
- Branch, Enobong Hannah. Opportunity Denied: Limiting Black Women to Devalued Work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11.
- Branch, Enobong Hannah and Melissa E. Wooten, "Suited for Service:

- Racialized Rationalization for the Ideal Domestic Servant from the Nineteenth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ocial Science History* 36.2 (Summer 2012): 169-189.
- Bryson, Bill. At Home: A Short History of Private Life. London: Black Swan, 2010.
- Clark, Jr., Clifford Edward. *The American Family Home, 1800-1960.*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 Elizabeth Clark-Lewis, Living In, Living Out: African Americans Domestics in Washington, D.C., 1910-1940.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4.
- Cowan, Ruth S. More Work for Mother: The Ironies of Household Technology from the Open Hearth to the Microwave. New York: Basic Books, 1983.
- "From Virginia Dare to Virginia Slims: Women and Technology in American Life," *Technology and Culture* 20.1 (Jan. 1979): 51-63.
- Degler, Carl. At Odds: Woman and the Family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Easton, Barbara. "Industrialization and Feminity: A Case Study of Nineteenth Century New England," *Social Problems* 23.4 (April 1976): 389-401.
- Evans, Sara. Born for Liberty: A History of Women in America. New York; Free Press, 1989.
- Forty, Adrian. *Objects of Desire: Design and Society since 1750.* London: Thames & Hudson, 1986.
- Hardyment, Christina. From Mangle to Microwave: The Mechanization of Household Work. Cambridge: Polity Press, 1988.
- Kessler-Harris, Alice. Out to Work: A History of Wage-Earning Wome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Norton, Mary B., et al. *A People and A Nation: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6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1.

- Nye, David E. *Electrifying America: Social Meanings of a New Technology,* 1880-1940. Cambridge, MA: MIT Press, 1990.
- Palmer, Phyllis. *Domesticity and Dirt: Housewives and Domestic Servants in the United States*, 1920-1945.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4.
- Pleck, Elizabeth H. *Black Migration and Poverty: Boston, 1865-1900.*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 Ryan, Mary. The Empire of the Mother: American Writing about Domesticity, 1830-1860. New York: Haworth Press, 1982.
- Sparke, Penny. *Electrical Appliances: Twentieth Century Design.* New York: E. P. Dutton, 1987.
- Spear, Allan H. *Black Chicago: The Making of a Negro Ghetto, 1890-192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Strasser, Susan. Never Done: A History of American Housework. New York: Pantheon, 1982.
- Susman, Warren. Culture as History: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Society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Pantheon, 1984.
- Tobey, Ronald C. *Technology as Freedom: The New Deal and the Electrical Modernization of the American Hom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 Wajcman, Judy.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 Cambridge: Polity Press, 1991.
- Welter, Barbara. "The Cult of True Womanhood, 1820-1860," *American Quarterly* 18 (Summer 1966): 151-74.
- Williams, James. "Getting Housewives the Electric Message: Gender and Energy Marketi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Gender, Consumption, and Technology*, ed. Roger Horowitz and Arwen Mohun.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8.
 - 논문 투고일자: 2016, 11, 30
 - 심사 완료일자: 2016, 12, 16
 - 게재 확정일자: 2016, 12, 21

Abstract

From Domestic Servant to 'Electric Servant': an Essa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Technological Change after the Civil War until the 1930s

Deok-Ho KIM
(KOREATECH)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technological change?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determinism, a technological change results in a social change, while the theory of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tells us a social change brings about a technological change.

Housework has been treated as drudgery. While the industrialization after the Civil War had been propelled, domestic service became common in the middle-class families. Despite the increasing demand from the middle-class familie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domestic servants, since 1880s the ratio between domestic servant and family had been declined.

At the nearly same time, the electrification in America had been spread. At some point, the electricity had been a part of everyday life; the domestic appliances such as electric iron, vacuum cleaner, washing machine, or refrigerator had been introduced to the American homes under the name of electric servant. They were advertised as the time-saving or labor-saving devices for the housework so that they could be expected to replace the domestic servants.

In this article, we will trace the possibility of causality between the reduction of domestic servants and the increase of the domestic appliances.

42 김덕호

Key Words

사회변화(social change),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 가내하인(domestic servant), 전기하인(electric servant), 가사노동(housework), 중간계급(middle-class), 가전제품(domestic/electric appliances), 주부(housewife)